

“사장님!”
 “왜?”
 “저...!”
 “얘기해요”
 “저희 송년회 말인데요...!”

태안으로 자원 봉사하지는 제안에 가슴 울컥 일 년 열 두 달이 마치 열 손가락 같아서 어느 한 달 소중하지 않은 달이 없겠지만, 한 해를 보내는 12월은 언제나 아쉽고 분주함이 묻어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회사 창립 10주년도 됐고 뭔가 특별한 송년회를 보내고 싶어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더니 뜻밖에 기름 범벅인 태안반도에 가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자고 한다.

순간 가슴이 ‘울컥’ 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의 심각한 소식을 접한 건 해외 출장 귀국 편에 펼쳐 본 신문이었다.

그 신문 한 권에 시선이 머물렀다. 시커멓게 오염된 만리포 해안가가 10여 일 만에 자원봉사자 10만 명. 정확히 약 10만 4천 8백여 명의 손길로 거의 원래 모습을 되찾은 모습을 하늘에서 촬영한 비교 사진이었다. 깨끗해진 모래사장에 간간히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색 흡착포 대열이 자원 봉사자들의 순수한 하얀색 마음을 보는 듯했다.

통닭 체인점 이름과 비슷한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벌집 쭈셔논 듯한 상황인데,(아니 사실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들은 고단한 일상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 나가느라 관심 밖일 수 있다. 단지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의 난장일 뿐) 거기에 기름유출 사고까지 겹쳤으니 2007년의 12월은 엉망으로 마감할 뻔 했다.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희망 한국’

그런데 언제나 그러하듯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의 극적 반전의 주역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 ‘필부필부(匹夫匹婦)’였다.

어디선가 만난 듯한,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한국은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

위대한 10만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없었다면 바닷 바람에 입술을 앙다물고, 기름때를 걷어 내는 어린 아이의 고사리 손이 없었다면 우리의 서해 바다는 아직도 시커멓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졸린 눈을 비벼가며 새벽 버스를 타고 자원 봉사를 떠나는 10만 명의 생명력이 있기에 또 다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요,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 대한민국’이 ‘아이쿠, 대한민국’으로 결코 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지 오 인 터 렉 티 브 (주) 김 병 기 대 표

유망기업의 희망